



차이나

CHINA Market Watch

마켓 워치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1분기 서비스 무역액 8.7% 성장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1분기 서비스무역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8.7% 성장한 1조 9,742억 위안, 이 중 수출은 12.2% 증가한 8,352억 위안, 수입은 6.2% 증가한 1조 1,390억 위안임
- 1분기 지식집약형 서비스 수출입은 2.6% 증가한 7,525억 위안, 이 중 수출은 2.1% 증가한 4,363억 위안, 수입은 3.4% 증가한 3,162억 위안이며,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수출입은 각각 0.8%, 4.8% 증가한 3,205억 위안, 2,623억 위안임
- 관광서비스는 서비스무역의 최대 업종으로 고속 성장세를 유지. 1분기 관광서비스 수출입은 21.8% 증가한 5,849억 위안, 이 중 수출과 수입은 각각 97.5%, 14.9% 증가

자료원 : 중국신문망

<https://baijiahao.baidu.com/s?id=1830698862501098318&wfr=spider&for=pc>

2 中, 국경간 전자상거래 B2B 새로운 성장 단계 진입

- 글로벌 국경간 전자상거래 B2B 시장은 꾸준한 성장 단계로 디지털화 수준 제고 및 서비스 향상에 따라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B2B 수출 규모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
-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 스탯리스타(Statista)는 2027년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규모를 25조 달러로 추산. 중국 상무부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B2B 교역액은 15조 위안으로 성장, 2030년에는 30조 위안을 넘어설 전망
- 상무부연구원에서 발표한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B2B 수출 전망보고서(2025)'에 따르면 2023년 최대 수출 품목은 공구·설비로 수출 비중은 27.6%를 차지, 그 외 방직품, 가정용품, 전자제품, 아웃도어용품 수출 비중은 각각 17.2%, 13.2%, 10.8%, 8.9%를 차지
- 해관통계에 따르면 2021~2024년 미국 및 일부 유럽 국가가 국가별 수출액 기준 10위권을 차지. 동남아, 중동 및 기타 일대일로 국가는 정책적 혜택, 물류시설 업그레이드, 소비 잠재력 등에 힘입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

자료원 : 국제상보

http://www.ce.cn/cysc/tech/gd2012/202504/29/t20250429_39351952.shtml

3 소비재 이구환신에 초장기 특별국채 자금 810억 위안 조달

-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재정부 등 부처와 공동으로 올해 2회차 초장기 특별국채 자금 810억 위안을 지방 정부에 조달, 지속적으로 이구환신(以旧换新, 새 제품 구입 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

* '2025년 국무원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이구환신 사업에 3,000억 위안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 발표

- 4월 27일까지 이구환신 보조금 지원을 받고 판매된 자동차는 281만 대, 가전제품은 4,942만 대, 휴대폰 등 디지털 제품은 3,786만 대, 인테리어·주방·욕실제품은 4,091만 건, 전동자전거는 420만 대로 소비재 판매액 7,200억 위안을 견인
-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방 정부의 자금사용 증빙자료에 대한 심사 가속화를 독려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며,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도록 추진할 계획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www.jjckb.cn/20250430/09fe4f7f3a9942f0a85e92795a326451/c.html>

4 전기차 충전기 누적 1,375만 대 설치

-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까지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누적 1,375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47.6% 증가, 이 중 공용 충전기는 390만 대, 개인용 충전기는 985만 대임
-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한 충전기는 누적 3.8만 대로 전국 휴게소의 98.0%를 커버. 시짱(西藏, 티벳)과 칭하이(青海)를 제외한 다른 성(省)은 전부 현(县)급 지역에 충전소를 건설해 현급 지역 충전기 보급률은 97.3%에 달하며, 13개 성(省)은 마을마다 충전기를 설치
- 명절 연휴기간 전기차 충전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에너지국은 해당 부문과 고출력 충전기 설치 및 개조 관련 정책을 제정 중이며, 지방 정부와 기업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 대기시간 없이 즉시 충전할 수 있는 고출력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장려할 예정

자료원 : 신화망

http://www.ce.cn/cysc/ny/gdxw/202504/29/t20250429_39351977.shtml

5 2024년 공연시장 매출 796억 위안 달성

- 중국 공연협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공연시장 수입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796억 위안, 이 중 공연 티켓 수입은 580억 위안, 기타 수입은 216억 위안임

- 대형 콘서트가 30개 성(省), 180개 도시에서 개최되어 현지 소비액 2,000억 위안을 견인, 소극장 공연 개최는 20만 회로 2023년 대비 13.2% 증가, 전체 공연 횟수의 45.0%를 차지
- 한편 온라인 공연이 증가하는 추세로 공연협회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 공연은 총 8,779회, 전체 관람객은 67억 명을 기록

자료원 : 인민일보

<https://capital.huanqiu.com/article/4MJHaJ4wtfU>

6 中, 나트륨 이온 배터리 시장 본격 공략

- 최근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충방전 수명, 안전성 등 측면에서 업그레이드 중으로, 업계는 나트륨은 매장량이 풍부해 리튬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분석
- 기술력 향상, 원가 절감, 산업사슬 연계와 더불어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 상용차 분야의 광범위한 응용이 기대되며, 향후 3~5년 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출하량은 100GWh(기가와트시), 시장규모는 1,000억 위안으로 성장할 전망
-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은 최근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 '나신(钠新)'을 공개하고 '나신 24V 중형트럭 배터리'를 오는 6월부터 양산할 계획을 밝힘. 해당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175Wh/kg, 작동 온도 범위는 -40~70℃로 높은 안정성을 입증함
- 3월 28일, 중커하이나(中科海钠)는 에너지 밀도 165Wh/kg, 20~25분 내 100% 충전이 가능한 상용차용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공개하여 중처(中车), 진룽(金龙), 장화이(江淮), 이치(一汽) 등 주요 완성차 업체의 주목을 받았으며, 일부 업체는 이미 중커하이나와 배터리 공동 연구개발, 기술 협력 등 분야의 협력에 착수함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www.ce.cn/cysc/ny/gdxw/202504/29/t20250429_39351949.shtml

7 中 전자상거래 플랫폼, 무역업체의 내수시장 개척 지원

- 최근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무역업체의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
-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淘宝)와 텐마오(天猫)는 입점 절차 간소화, 트래픽 지원, 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를 발표,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무역업체 2만 개사가 입점을 마치고 판매를 개시
- 검색엔진 기업 바이두(百度) 산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AI 디지털 인플루언서'를 통한 24시간 라이브방송 서비스, 입점비 면제, 180일간 수수료 면제, 트래픽 지원 등의 조치를 발표, 텐센트

(腾讯)·징둥(京东)·콰이서우(快手)·더우인(抖音) 등 플랫폼은 트래픽 지원, 할인 쿠폰 제공 등의 조치를 시행

- 위챗스토어(微信小店)를 운영 중인 저장성 이우시 주방용품 업체는 트래픽 지원을 받은 당일 매출이 100만 위안을 넘겼고 8시간 만에 냄비 5천 세트를 완판. 플랫폼의 트래픽 지원으로 일부 단일 라이브방송은 최대 접속자 25만 명, 판매액 1,000만 위안을 기록

자료원 : CCTV망

<http://www.cinic.org.cn/hy/zh/1585373.html>

8 中,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3.3% 증가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한 7,160만 대, 동기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1.5% 증가한 3억 490만 대임

-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1~5위 제조업체는 샤오미, 화웨이, 오포, 비보, 애플로 집계

〈2025년 1분기 기준 중국 5대 스마트폰 제조업체〉

No.	업체명	2025년 1분기 출하량(백만 대)	2025년 1분기 시장점유율(%)	2024년 1분기 출하량(백만 대)	2024년 1분기 시장점유율(%)	출하량 증감률(%)
1	샤오미(小米)	13.3	18.6	9.5	13.8	39.9
2	화웨이(华为)	12.9	18.0	11.7	17.0	10.0
3	오포(OPPO)	11.2	15.7	10.9	15.7	3.3
4	비보(vivo)	10.3	14.4	10.1	14.6	2.3
5	애플(Apple)	9.8	13.7	10.8	15.6	-9.0
-	기 타	14.0	19.5	16.3	23.5	-14.0
-	합 계	71.6	100.0	69.3	100.0	3.3

출처 : 시장조사기관 IDC

-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1~5위 제조업체는 삼성, 애플, 샤오미, 오포, 비보로 집계

〈2025년 1분기 기준 글로벌 5대 스마트폰 제조업체〉

No.	업체명	2025년 1분기 출하량(백만 대)	2025년 1분기 시장점유율(%)	2024년 1분기 출하량(백만 대)	2024년 1분기 시장점유율(%)	출하량 증감률(%)
1	삼성(Samsung)	60.6	19.9	60.2	20.0	0.6
2	애플(Apple)	57.9	19.0	52.6	17.5	10.0
3	샤오미(小米)	41.8	13.7	40.8	13.6	2.5
4	오포(OPPO)	23.5	7.7	25.2	8.4	-6.8
5	비보(vivo)	22.7	7.4	21.3	7.1	6.3
-	기 타	98.4	32.3	100.1	33.3	-1.7
-	합 계	304.9	100.0	300.3	100.0	1.5

출처 : 시장조사기관 IDC

자료원 : 평냐오망(蜂鸟网)

<http://app.myzaker.com/news/article.php?pk=6800e87f8e9f0931ab0d1bed>